

“데이터 범위 확대하고 수익성 다각화해 위기대응 나서야”

인터넷뱅크 5주년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시 건전성 기준 차별화 된 신용평가제도 마련해야
중금리 대출 집중엔 리스크 분산 한계

“경제위기 상황에는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위기에 취약할 수 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인터넷뱅크 5주년: 내 손 안의 은행에서 모두의 은행으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며 금융회사 간 경쟁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외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리인상으로 주 고객인 스타트업이 예금액을 대거 인출하면서 이달 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특히 민 교수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할 경우 건전성에 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터넷뱅크 5주년: 내 손 안의 은행에서 모두의 은행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나유리 기자

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0.49%로 1년 전과 비교해 0.27%포인트(p) 상승했다. 케이뱅크도 1년전보다 0.44%p 오른 0.85%로 집계됐다.

◆고객데이터 늘려 신용평가 고도화해야
토론회에서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안신용평가에 폭넓은 데이터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 교수는 “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을 하고 신한은행이 배달앱을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다”라며 “은행에 접근해 얻는 데이터를 통해서 한 계가 있는 만큼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해 신용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기존 의

신용평가제도에 추가 데이터를 사용하기 보다 차별화된 신용평가제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신용평가제도는 추심회사가 돈을 받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70년간 굳어져온 제도”라며 “기존 은행이 이용하는 신용평가제도를 따라가기 보다 소비자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신용평가제도로 판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를 좀 더 편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본업인 금융업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며 “상반기 보다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금리대출 리스크 커... 수익 다각화해야

인터넷은행에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위한 스몰 라이선스를 허용하고, 투자자문업 범위를 확대해 중·저신용 대출에 한정돼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ETF는 사실상 특정증권신탁의 형태로 중

개 돼 소비자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데 이는 신탁보수라는 불필요한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해 투자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ETF 중개시장에 진입할 경우 접근성도 강화할 수 있고 수수료 인하 경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은행의 투자자문업 허용 범위가 부동산 자산등으로 한정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여 교수는 “부동산 이외 투자자문업 경영은 현재도 법령 개정없이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을 위한 허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특성상 플랫폼 안에서 투자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에만 집중할 경우 리스크 분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수익성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시하고, 향후에는 해외진출을 하면 수익을 다각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롯데가 응원합니다

롯데하이마트

지금

하이메이드를 만나보세요

롯데하이마트가 만든 합리적인 가격과 믿을 수 있는 상품

하이메이드 4도어 냉장고
HMT-2303M4
FRESH SEMI INVERTED 냉장고
판매가 779,000원

하이메이드 12KG 세탁기
HMW-1253S
스티인레스 세탁조 탑재
판매가 399,000원

하이메이드 UHD TV(108cm)
HMT-43L5
인드루이드 스마트 TV
판매가 459,000원

하이메이드 핸드형 무선 청소기
HMV-UP140
13등급 미세먼지
판매가 113,000원

하이메이드 대용량 전자레인지(25L)
HMV-ME25B
600W 고속레인지
판매가 119,000원

하이메이드 기계식 선풍기(35cm)
HM-NF1423W
사출엔지니어링 선풍기
판매가 49,000원

하이메이드 헤어드라이어
HF-D-UN1610W
국내생산 1650W
판매가 43,000원

하이메이드 X 코지마 4D 안마의자
HM-X5000(G)
LS프린팅
판매가 4,280,000원

HIMADE Made by 롯데하이마트

삼성,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과학기술원 반도체학과 신설

내년 3월부터 학석사 통합 운영
참가학생 등록금 전액·장학금 지급
졸업생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취업

삼성이 지역 반도체 전문가와 생태계 육성을 본격화한다.

삼성전자는 27일 3개 과학기술원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협약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이다. 올 하반기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 3월부터 학석사 통합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원은 총 100명이다. 5년간 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학석사 통합 반도체 계약학과 과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5년간 반도체 공정 제어 기술을 중심으로한 커리큘럼을 통해 반도체 클린룸 실습 등 현장 중심 교육과 반도체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창의성을 높이는 융합 수업도 병행한다.

참가 학생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과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인턴 실습 기회와 임직원 멘토도 받을 수 있다. 졸업 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취업도 보장한다.

삼성은 이번에 계약학과를 추가 개설하면서 7개를 운영하게 됐다. 성균관대와 연세대, 카이스트와 포항공대에서 이미 운영 중, 일부 계약학과는 정원을 확대하면서 2029년부터 반도체 전문가를 연간 450명씩 배출할 예정이다.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인

력 수요는 2031년 30만4000명으로 2021년(17만7000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에서 배출하는 반도체 산업 인력은 5000명에 불과해 경쟁력 저하와 생산 및 연구시설 해외 유출까지도 우려된다.

삼성은 이를 통해 급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과학기술원에 신설한 계약학과는 공정 전문가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설계와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길러내던 기존 계약학과와 함께 반도체 핵심 분야 인재를 골고루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지역 반도체 인재 양성 허브'로 반도체 산업 수도권 풀림을 완화하고 인재육성과 산업 성장 선순환 체계도 기대된다.

삼성이 새로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한 데에는 이재용 회장 역할이 컸다. 이 회장은 취임 후 전국 사업장을 돌며 인재 육성은 물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지역 육성에 60조원 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지방대와 계약학과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국적인 반도체 인재 인프라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반도체 생태계 뿐 아니라 지역 상생도 함께 이뤄냈다.

삼성은 반도체 외에도 디스플레이 계약학과와 함께 산학협력 지원, 박사 장학생과 지방 국립대 지원 등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미래 인재 육성을 지속하고 있다. '삼성미래기술 육성사업'을 통해 기초 과학과 원천 기술 등 국내 신진 연구자의 혁신적인 연구도 지원한다.

/김재용기자 juk@